

광양, '모바일 서비스' 디지털 행정 선도

LOCAL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전국 최초 원스톱 통합행정 플랫폼 'MY광양' 개발·운영 정인화 시장 "시민 중심·사용자 친화적 앱 발전시킬 것"

광양시가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을 확대,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한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 원스톱 통합행정 플랫폼인 모바일 앱(App) 'MY광양'을 개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MY광양'은 광양시 모든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

발됐다. 시는 4월 한 달 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다음달 22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MY광양'은 총 기능이 22개로 주요 기능을 보면 고시, 공고, 보도자료 등 시정 소식, 500개 이상의 복지정책 검색, 각종 행정 서비스 신청, 모바일 도서관 회원증



발급,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신청, 시민 아이디어 접수, 통합예약 기능(24시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종 생활정보 안내(병원, 약국, 전기차충전소 등), 재난정보 알림, 정책투표 및 설문조사, 긴급복지 SOS신청,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읍면동 소식 등이다.

또 시의 6개 홈페이지 통합로그인(SSO) 기능, 나에게 필요한 메뉴를 설정하는 나의메뉴 기능, 업무로 담당부서 검색 및 전화연결 기능, 시정 전반에 대한 민원상담 채팅 서비스,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공유기능 등 다양한 시민 편의 기능도 갖췄다.

'MY광양'은 시범운영기간에도 접수된 모든 행정서비스 신청은 정식 민원으로 환절정보 안내(병원, 약국, 전기차충전소 등), 재난정보 알림, 정책투표 및 설문조사, 긴급복지 SOS신청, 대형폐기물 배출

시는 앱 정식 운영 이후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기능고도화 작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전통시장 메뉴결제 및 배송 서비스, 챗GPT를 통한 24시간 민원상담 채팅 서비스 등 완성도 높은 스마트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인화 시장은 "시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플랫폼을 만들었다"며 "시 모바일 앱 'MY광양'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더욱 실용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앱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규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함평,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내달 9일까지...최대 100만원

함평군은 다음달 9일까지 노후 경유차량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5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차량이다. 단, 신청일 기준 함평군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량의 차종, 연식, 형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군은 현재까지 약 70대의 차량 폐차를 지원했으며 이번 추가 접수로 150대의 차량 폐차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다음달 9일까지 군청 환경관리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청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061-320-1838)에 문의하면 된다.

함평=최일근 기자 626373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제25차 정기회 여수세계세탁람회 성공개최 협약·COP33 유치 건의 등 의결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장중남 남해군수)가 지난 22일 9개 회원 시·군 단체장과 80여명의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정기회를 여수에서 개최했다. 정기회는 회장 시·군에서 개최하는 것이 관례로 이번 정기회는 2026여수세계세탁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회원 시·군 협력을 다지기 위해 특별히 여수에서 개최됐다.

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3)의 대한민국 유치 확정과 남해안 남중권을 개최 장소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기회 시장은 섬박람회와 COP33 유치 관련 회원 시·군의 지원을 부탁하는 한편, 지방 소도시들이 맞닥뜨린 경기침체와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남해안 남중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지난 22일 9개 회원 시·군 단체장과 80여명의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25차 정기회를 여수에서 개최했다.

"힘찬 미래, 더 큰 담양 만들겠다"

정철원 군수, 군정구호·목표·5대 방침 확정

정철원 담양군수(사진)가 민선 8기 담양군정의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군정구호와 목표, 5대 분야별 군정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정철원 군수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대 군정방침을 설정했다.

23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엔 확정된 군정 비전은 담양군이 추구하는 행정 철학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 중심축이 될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한다.

분야별로는 매력 있는 문화관광(관광·문화), 빈틈없는 감동복지(보건복지·교육), 살맛 나는 부자농촌(농업·농촌), 생동하는 활력경제(경제·정주), 신뢰받는 공감행정(행정·소통) 등이다.

군정구호는 '힘찬 미래, 더 큰 담양'으로, 담양의 도약과 성장을 이끄는 역동적 추진력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고 있다.

정철원 군수는 "이제 담양은 군민과 함께 힘찬 미래를 만들어 갈 준비를 마쳤다"며 "군민 삶 가까이에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담양형 정책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

군정목표는 '기회가 넘치는 활력도시 담양 건설'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군민 모두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jwnews@

순천, 체류형관광 '마을여행' 확대

'순천마을스테이' 브랜드 발굴·로컬여행주간 착수

순천시가 지역 마을을 거점으로 한 새로운 체류형 관광 브랜드 '순천마을스테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순천마을스테이' 브랜드 발굴 및 2025 로컬여행주간 운영' 용역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의 시작을 알렸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순천마을여행'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순천의 마을이 가진 고유한 자원과 일상 속 이야기를 관광 콘텐츠로 발굴해, '머무는' 여행을 넘어 '삶을 체험하는' 여행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순천마을스테이 BI(Brand Identity) 개발, 마을호스트(운영주체) 육성, 마을별 숙소·식당·체험 연계 콘텐츠 발굴, 2025 순천로컬여행주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 8월부터 3개월간 운영될 '순천로컬여행주간'에서는 실제로 관광객이 마을에서 자고, 먹고, 체험하는 체류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 순천의 원도심·순천만 치유관광 권역을 중심으로, 자연·문화·음식·힐링자원을 연계한 '슬로우스테이형'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이울리 여행 유튜브와 인플루언서 캠페인, SNS 이벤트,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의 숙소 예약 플랫폼과



순천시가 지역 마을 거점으로 한 새로운 체류형 관광 브랜드 '순천마을스테이'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순천 아랫장투어중인 여행객들.

연계해 실질적인 방문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가 주체가 되는 상생 모델이다"며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순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화순, 치매극복 붐꽃걷기 내일 꽃길길 음악분수대

화순군은 25일 화순읍 붐꽃축제장 꽃길 음악분수대 앞에서 주민과 함께 '2025년 한마음 치매극복 붐꽃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행사에서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예방 체조, 치매관련 OX 퀴즈 및 캠페인, 치매예방 붐꽃걷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출발지, 도착지에서 걷기 스탬프도장을 완성한 주민 300명에게 소정의 완주 기념품(미니 에코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한 만큼, 이번 걷기 행사를 통해 모든 분이 치매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따뜻한 봄날 화순 붐꽃 축제장 걷기를 통해 치매 예방에 도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 판촉물 트로피 기념품 상패 휘장 ”

www. 광주판촉물 .com

062) 376-5431
서구 상무중앙로75, MK타워 1층

'광주사람'은 '광주판촉물' 이지..

NAVER 광주판촉물

나라장터 | S2B 학교장터 등록업체